



9월, 깐달건달 캄보디아 탐색전

저희 캄보디아 깐달건달팀은 보고서의 형식이 자유라는 점에 착안하여, 블로그를 통해 저희의 생활과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려고 합니다.

보고서라는 형식에 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보태지지 않았던 더 세세한 이야기들과 저희의 느낌들을 진솔하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그날의 느낌, 냄새, 감정 등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글과 사진, 그리고 동영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블로그라는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파일에 더 추가된 것이 있다면, 9월 일정표와 저희 개인의 9월 э세이가 더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의 보고서가 아닌, 블로그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http://blog.naver.com/gundal0908>

캄보디아 깐달건달, 9월 일정

Mon	Tue	Wed	Thur	Fri	Sat	Sun
			8	9	10	11
			도착!	대청소 장브리	짐정리 프놈펜나들이 with 브람	마을구경
12	13	14	15	16	17	18
앞으로의 일정 간단히 소개	까리타스 직원들 과 첫 오피스 미팅	럭키마트 장브리	까리타스 직원들과 환영회식	유스들과 자기소개~ 대청소 고기없는 날(저녁)	마을에 들릴 한국 음식 준비	마을사람들께 인사
19	20	21	22	23	24	25
까리타스 직원, 학생들과 한국음 식만들기~ & small party	유스들과 농구	르즈우드 마을축제	대청소 따프마오 시장	영화감상 with Somban, Srey Nich 고기없는 날(저녁)	프놈펜 왕궁 나들이	마을 강변 나들이
26	27	28	29	30		
유스들과 함께한 댄스파티	씨엘립 여행계획	메일 salon open	캄보디아 명절. 프놈번데이 씨엘립여행 (~10/3)			

메익이 말하는 '쭈쭈'



양수. 크메르어 이름은 쭈쭈, 화이팅이라는 뜻이다.
이름만 불러도 화이팅의 의미가 되는 그의 이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이름을 좋아한다.
쭈쭈가 바로 이번 달 내가 소개할 친구다.



그 어떤 친구보다 소개하기 가장 어려웠던 양수.

사실 난 그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한 달은 양산에서, 한 달은 여기서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알아가야할 것들이 아직도 많은 친구다.



우선 지금까지 내가 그에 대해서 알게된 것은,
계곡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글 쓰는 것도 즐기고, 잠도 많고,

아, 가장 그가 행복해하는 순간은 먹을 때.

먹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다.

캄보디아에 오고 지금까지의 양수의 일과는
아침에 오늘 하루 자신이 해야 할 일정을 정리하고,

크메르어를 공부한다.

물론 항상 크메르어 공부는 30 분만 하면 졸립다며
꼭 크메르어 책을 펼친 지 40 분 쯤 되어가면 지루해한다.



아침 일정 이후 점심을 먹고,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는 영어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정말 열심히.

아픈 날을 제외하고는 빼먹지 않고 운동과 공부를 꾸준히 했던 것 같다.
운동과 공부 모두 잘 실행하고 있는데
양수가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것 중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금연이다.

이곳은 한국보다 담배가 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우리모두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피우라며
그의 금연을 돕지 못하는 말만 해대지만,
아직까지 그의 금연은 성공적이다.

(대단한 쑈쑈를 위해 그의 트레이드 표정과 포즈모음)



키도 182cm 에 덩치도 있어서 우리 중 가장 건강해 보이는 양수.



그의 덩치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보기와 다르게 양산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그가 가장 자주, 많이 아팠던 것 같다.

배가 아파서 먹고 싶은 치킨도, 돼지고기도, 라면도 꺽꺽 참았다.
먹는 순간이 행복 그 자체인 그에게 먹는 걸 참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초반에 많이 아팠지만 여행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겠다던 그의 다짐으로
짧은 단식을 통해 아픔을 극복했고 여행가서 맛있는 것 오지게 먹었다.



치킨의 양념도 팝콘도 놓칠 수 없다.



햄버거, 커피 넘나 맛있는 것

양산에서도 노래가 부르고 싶어 혼자서도 노래방을 찾았던 그.
 여기서도 옆집이라기보다 옆방에 할머니가 계시고,
 이 마을은 오후 7~8 시만 되어도 조용해지기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곳이 없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일보다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그는 노래부르고 싶은 욕망을 참아왔다.

참았던 음악에 대한 흥은 유스들과의 small party 에서
 원없이 푸는 것처럼 보였다.

리듬에 맞춰 춤도 추고 손바닥으로 박자도 맞추고
 그렇게 밝고 환한 그의 표정을 캄보디아에서 처음보았다.

[동영상]



입이 귀에 걸리겠어 양수야

씨엠립 여행갔을 때 한 식당에서
결국
그는 또 한 번 그의 노래에 대한 열정을 뽐어냈다.
드디어 그가 무대에 나섰다.
김범수의 '보고싶다'를 열창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두 양수의 팬이 되어 버렸다.

[동영상]

(양수는 정말 노래를 잘한다.
저 무대에서는 음을 너무 높게 잡았고,
관객이 너무나 많아서 떨리는 마음에
실력 발휘 못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에피소드 1.

씨엠립 여행갔을 때, 양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은 적이 있다.
양수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지자 무슨일일까 우리는 걱정이 많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양수는 경찰서에 끌려갔단다...
수배범과 얼굴이 비슷해 그를 경찰서까지 연행했던 것이다.
자꾸 어떤 사진과 비교하며 자기를 쳐다봤다는데
당시 양수는 여권이 없었다.
신분증이라는 것이 없으니 경찰도 답답해 미쳤겠지.
그런데 말도 안통하니 더 답답했을 것이다.
양수도 경찰도 서로를 넘나 답답해했고,
양수는 한국 주민등록증까지 보여가며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자기가 범죄자가 아님을 입증했다고 한다.

에피소드 2.

모두 피자가 먹고싶어서 마음먹고 피자집을 찾았다.

3~4 인용 피자를 시켰고,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을 가득 안고 피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분명 우린 3~4 인용을 시켰는데

누가봐도 이것은 양수 1명이 먹어도 부족한 양.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그이기에,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

양수는 화가 났지만 어떻게 따질 수도 없기에

혼자서 씹씩대다 메뉴판을 다시 보고 소리쳤다.

‘저기요 여기서 가장 비싼 치킨 한마리 주세요!’



어이없는 양에 비친 그의 어이없는 표정

에피소드 3.

이것도 양수가 혼자 있던 때.

왜 양수가 혼자만 있으면 이렇게 일이 터지는지.

양수는 사건을 몰고다닌다.

혼자서 강변을 다니다가 양수는 쓰러져가는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그 할아버지를 업고 병원까지 갔다.

할아버지와 그 부인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양수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감사한 마음을 전해받았지만 이곳은 타지.

혹시나 모르는 두려움에 양수는 정중히 거절하고

다음에 팀원들과 모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에피소드 4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3 일째인가,
시장에서 따듯한 국물의 국수를 시켰다.
종업원이 뜨거운 국수를 가져다 주시며 ‘썩하’라고 하길래
썩하가 '뜨겁다'는 의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썩하는 ‘잘생겼어요’ 였다.
그렇다. 아마도 양수는 캄보디아 미남형인가보다.
길가다가도 닭꼬치를 선물로 받고, 유스들에게도 인기폭발.
양수 얼굴 덕을 앞으로 좀 봐야겠다.



썩하 썩썩 1



썩하 썩썩 2

마지막은, 양수의 그녀에게 양수가 보내는 사진



(손은 안잡았어요)

메익

망고가 말하는 메익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양산에서부터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은 화장실을 쓰면서 몸을 부대껴온 도희언니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격부터 음식, 옷, 이성관계, 가족, 친구 등등... 두 달 동안 내가 알아온 도희언니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크메르 이름으로 '하늘'이라는 뜻의 메익, 도희언니를 파헤쳐보겠다.



1. 회계

언니는 어쩌면 우리 생활 중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는 돈관리를 맡고 있다. 리엘과 달러, 두 화폐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캄보디아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은 상당히 피곤해진다. 달러의 환율에 따라 어쩔 땐 4000 리엘로, 또 어떨땐 4100 리엘로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양산에서보다 언니가 돈관리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도와주고 싶지만, 괜히 나섰다가 일이 더 커질것 같아 그냥 언니에게 맡기고 있다. 아직도 나는 거스름돈을 받고 한참을 서서 머릿속으로 맞게 거슬러 준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단계. 언니는 이제 리엘과 달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종업원의 잘못된 계산을 따질 수 있는경지에 이르렀다.

2. 흥정의 달인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툭툭을 탈 때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불렀을 때에 우리가 내보이는 첫 반응이다. 치마 하나에 4 달러를 불렀는데, 우리가 초짜티, 외국인티 팍팍 내면서 "틀라이나~(너무 비싸요~)" 이러면 흥정의 시작부터 틀려먹은 것이다. 이미 캄보디아 물가를 다 꿰고 있다는 듯, 우리는 이미 이 시장에 여러번 와봤다는 듯이 굴어야 한다. 때로는 무슨 그런 바가지를 씌우냐며 화를 내면서 표정을 굳혀야 할 때도 있고, 장사꾼이 서글서글한 편이라면 같이 웃으면서 다 안다는 듯 능글맞게 웃어야 할 때도 있다. 이걸 도희언니가 참 기가 막히게 잘한다. 시장에선 무조건 도희언니와 함께 다니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3. 빨래

도희언니는 자신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다. 양산에서 처음 언니가 잘 때마다 베개에 수건을 깔고 자는 것을 알았다. 집이 아니라 신경쓰여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알고보니 집에서도 깔고 잔다고 한다. 또 언니는 옷에 있는 모든 섬유 한올 한올에 있는 모든 세균을 박멸하겠다는 듯이 빨래를 한다. 나는 언니의 그 열정에 매번 감탄한다. 귀찮아서 대충 발로 밟다가 더러운 부분만 몇번 문지르고 물로 헹구는 나에 비해, 언니는 모든 옷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 빨래판에 박박 문지르고 짜고 헹구고 다시 비비고... 빨래를 끝내고 땀으로 젖어 있는 언니의 사진이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

4. 미숫가루

언니는 삼촌이 보내주시는 녹색의 미숫가루만 먹는다. 나도 양산에서부터 몇번 먹어봤다. 양산에는 믹서기가 없어 직접 손가락으로 풀어야 해서 언니가 매번 아쉬워했는데, 간달집에는 다행히 믹서기가 있었다. 믹서기를 발견하고 세상을 다 가진듯 기뻐했던 언니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언니는 참 사소한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출국 직전, 언니는 미숫가루가 마약처럼 보여서 검색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저 커다란 경찰개들이 언니 가방에 코를 갖다대며 짚어서 모든 공항사람들이 언니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고, 잠깐 연행되어 취조를 받다가 풀려나는 정도일거라고 장난삼아 놀렸던 기억이 난다.

5. 우유

언니는 우유를 참 좋아한다. 라떼부터 미숫가루, 시리얼까지 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음식에서 언니에겐 우유를 빼놓을 수 없어 보인다. 사실 이번 과견에서 우유와 유제품까지 제한하는 오보채식을 목표로 했는데, 언니가 우유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6. 치마

언니는 캄보디아 현지 치마에 꽂혀 있다. Central Market 에는 이미 자주 찾아가는 단골 치마집을 만들었을 정도이다. 화려한 패턴, 짙은 색깔의 캄보디아 치마들이 언니에게 참 잘 어울린다. 이참에 간달몰을 열어 공구사이트를 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내가 장난을 쳤는데, 이번에 우리팀 블로그도 생긴 걸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팔아볼 작정이다. 옷이 아니더라도 바나나 껍질로 종이를 만드는 친환경 브랜드나 포대를 재활용해서 만든 아이템들 중엔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것들이 많았다.





7. 리액션 확정기

언니는 사소한 것에도 매우 큰 리액션을 보인다. 특히 언니는 마트에 가면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모든 상품 하나하나에 호기심을 보이며 "우와!!!이거 뭐야??!!!" "우와!!!이거 짱이다" 를 연발한다. 무덤덤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온 나는 언니의 이런 커다란 리액션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

written by 망고

<https://brunch.co.kr/@ann069/21>

범어리 오합마 ‘쫄쫄’

쭈쭈가 보는 “쫄쫄”

지금부터 나는 우리 간달 건달 팀의 만능을 맡고 있는

‘쫄쫄’

종수를 소개하려고 한다.



멋진 미소가 매력적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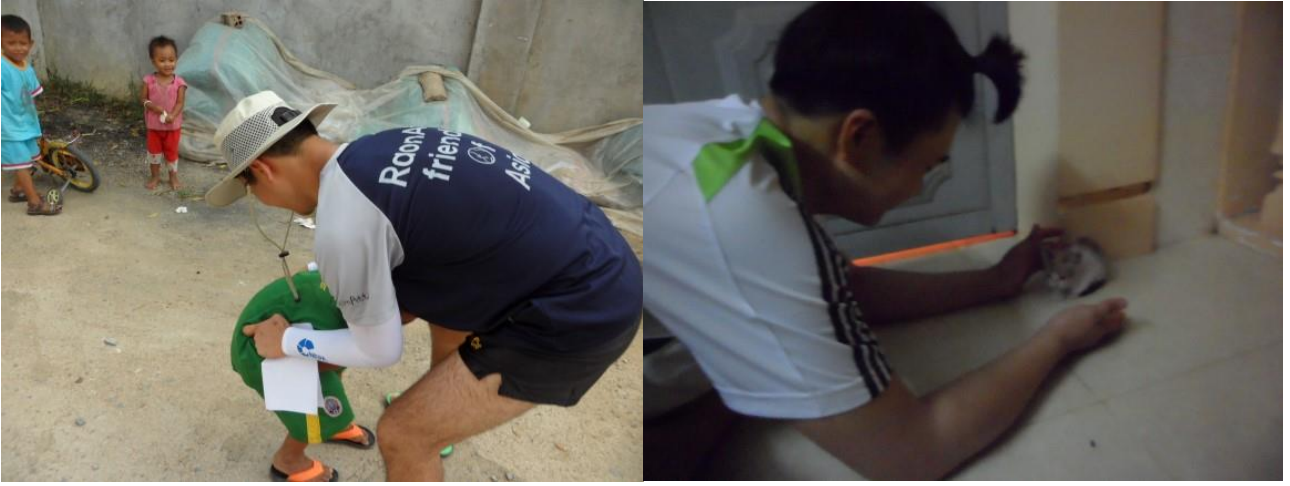
그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티없이 맑은 아이의 웃음 같은
특유의 눈 웃음을 보여준다.



마치 티벳 사막의 여우처럼 말이다.
(사실 그래서 이름도 쯔쯔다. 캄보디아어로 쯔쯔는 여우다.)



내가 아는 종수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인사성이 밝고 누구에게나 환한 미소를 보여주며
심지어 대화가 통하지 않지만 바디 랭귀지로
우리과 같이 사시는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종수

또한 종수는
배려와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친구이다.

“도와 줄까?” “내가 할게.”
종수가 늘 하는 말 중 하나이다.

그의 배려는 어느덧 우리의 팀 안에 꽃잎이 물든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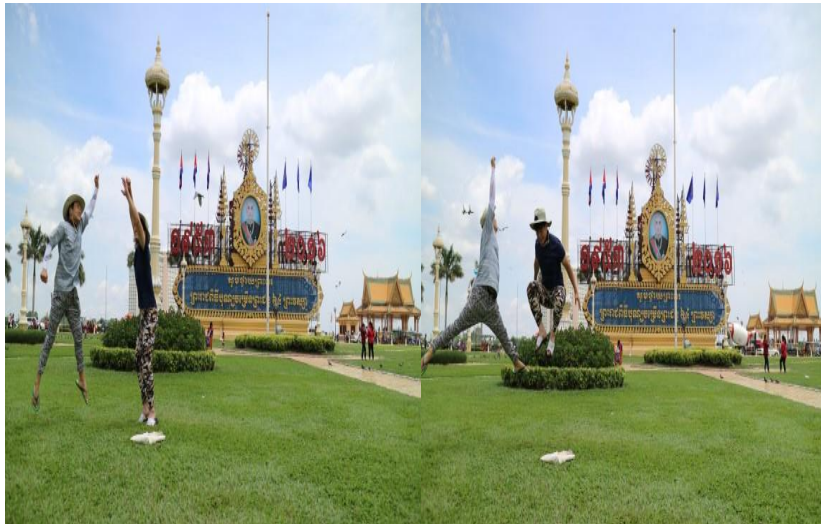






그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면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루에 면을 안 먹은 것을 본적이 거의 없다.

"쌀 보단 면이지"
그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종수는 섬세하지만 활동적인 친구이다.
건축학과 답게 작업을 하거나 짐을 싸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섬세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정확하면서도 세밀하게 일을 하고
또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 길을 정말 잘 찾는다.
우리팀의 네이게이션!
물건을 다루고 고치고 설치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친구이자
동생이지만 배울게 많은 친구이다.

쫄쫄의 에피소드

- 머리를 깎다-





나는 종수가 캄보디아 미용사분들을 못믿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대화도 안통하다 보니 스스로 바리깡을 사서 시도했다는 것도..
하지만 이게 과연 성공일지는 잘 모르겠다.

+ _ +



종수는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고 있다.

그 특유의 밝은 눈 웃음과 배려가 만든
자연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종수가 우리팀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내가 종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끔은 서먹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는 내 동생이자 친구이며 형이자 파트너이다.



쫘쫘! 화이팅! 간달 건달팀도 화이팅!!!

'쫄쫄'가 경험한 '망고'

저희 캄보디아 간달 건달 팀의 팀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팀원은 바로~바로!!!

우리 팀의 귀여운(?) 막내입니다~

우리 팀 막내는 팀 내에서 우리의 엄마이자 Chef 이자 사진작가입니다. :)

참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막내인데요~ㅎㅎ

지금부터 막내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큐!



이름 : 망고(본명:이승연)

나이 : 만 21 세

체형 : 아담아담합니다.

취미 : 영화 보기, 요리하기, 사진 찍기

특기 : @혼술@

뭐...

간단한 소개는 이정도?ㅎㅎ

자세한 소개는 이제부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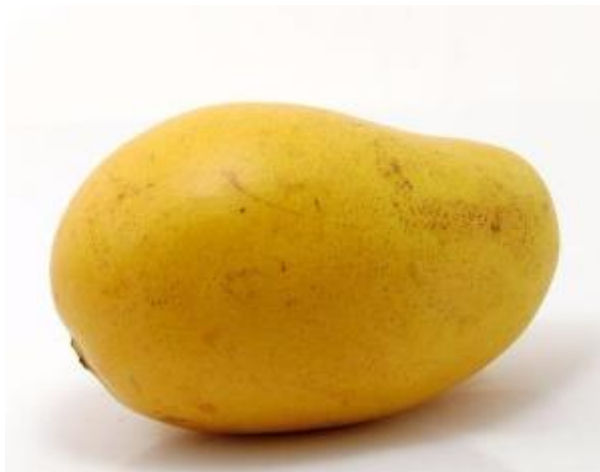
우리 팀의 막내이자 엄마의 이름은?

망고!



왜 망고냐구요?

망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름까지 망고로 지었어요. :)



(자세히 보시면 얼굴도 망고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막내가 왜 우리 팀의 엄마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막내예요!

언제나 우리들을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우리를 위해 맛있는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위해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야 우리 팀원들이 잘먹을까?’하는 고민을 매일같이 해요.

뭐 이것 말고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 막내는 우리 팀에서 엄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



생과일주스를 먹는다는 생각에 신이 난 엄마!

우리 망고가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요리!



우리 망고가 요리하는 고운 자태를 보세요!

우리 망고는 요리를 할 때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또 재미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럼 망고의 요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죠?



정말 맛있어 보이죠? ㅎㅎ

여기 있는 요리들이 다 우리 망고가 해주는 밥상들이에요 ^&^
이것 말고도 더 많지만 공간이 없어서 우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망고가 해주는 음식 정말로 다 맛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시길~~~
(단. 기회가 된다면...^^)

망고의 다른 취미는 바로~~~

사진 찍기!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집중하는 저 표정을 짓는데요! :)



우리 망고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들 사진이나 풍경 사진, 요리 사진 등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가 망고의 카메라 한 대뿐이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망고의 취미
같기는 하지만.....)

망고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영화 보기!



옆에 삐죽 입을 내민 메익 누나한테는 미안! :)

우리 망고는 영화 보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편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영화 코드가 맞지 않아 자주 같이 보지는 않아요...ㅠ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취미이자 특기가 있는데요!

바로~~~~~

혼.술



우리 망고가 요즘 들어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같이(?) 한두 잔 정도 마시고 계시는데요! :)

제가 옆에서 가끔 같이 먹어주고는 있는데
저보다 더 잘 마셔서 제가 먼저 뺏는 날들이 있죠...

(망고에게 주당의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이것 말고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병들만 보여드릴게요~
이 술들이 망고와 제가 먹어치운 술들인데요! ㅎㅎ
저희의 목표는 다양한 종류의 술병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 망고는 채식주의자라서 육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망고는 식당에 가면 샐러드만 시켜서 먹거나
유일하게 먹는 고기인 연어를 시켜서 먹어요.
(망고가 마른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ㅠㅠ)



이런 메뉴들만 먹는 망고가 참으로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울 망고가
아주아주아주아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
로
바
로



커피

커피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건 더치커피!!!

망고는 커피를 정말로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데요.
망고는 커피를 땀새 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말 매일같이 드시는 음료예요!

(잘 생각해 보면 망고는 커피를 몸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ㅎㅎ)



느낌 있게 잘 나온 망고 사진! (ps.제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망고에 대해 알겠나요?
우리 망고는 체구는 작지만 정신적으로는 강한 막내입니다!
우리 망고가 앞으로도 언제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세요~



‘쫄쫄’가 소개하는 ‘Caritas’

저희가 살고 있는 칸달에서 주로 활동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Caritas

‘사랑’, ‘애덕’, ‘자선’

이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가리키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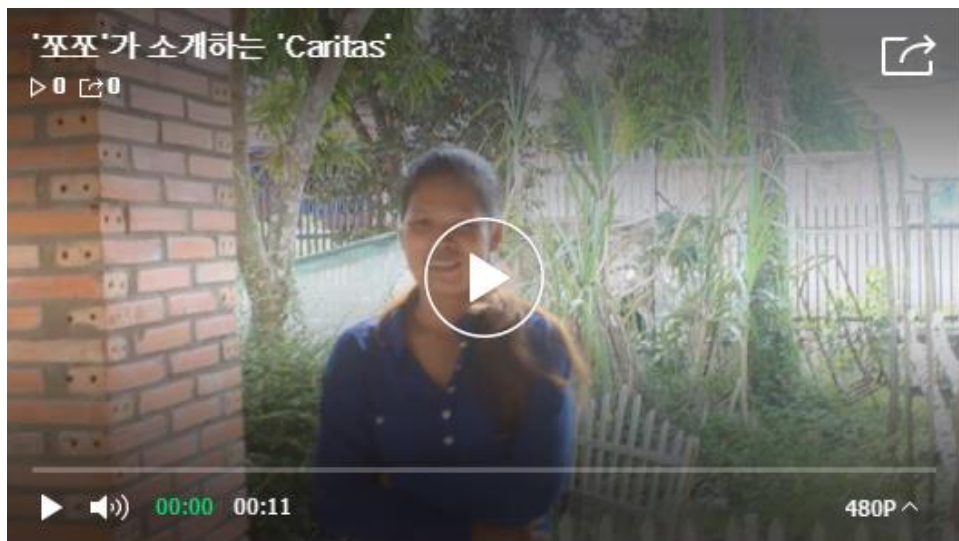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Caritas 사무실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스텝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 Caritas 의 대빵, 탄!



탄은 이곳 Caritas 의 총책임자로서
우리 라온아띠도 책임지고 있는 대장입니다.

Caritas 의 실세, 서포완!



서포완은 모든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 짱 인데요.
Caritas 의 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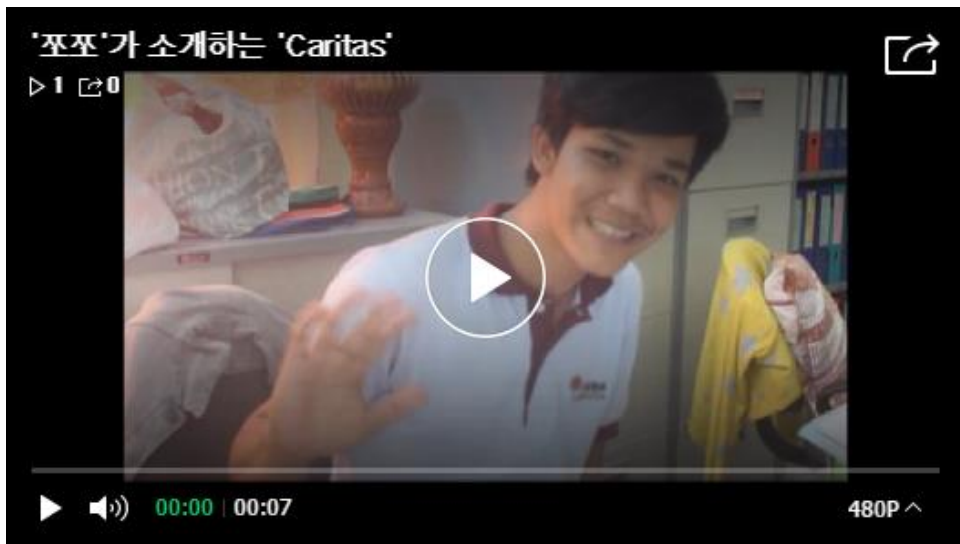
Caritas 의 행동대장, 우뜸!



우뜸은 Caritas 의 행동대장으로 모든 물리적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줍니다!
(너무 친절한 우뜸!)

Caritas 의 막내들!

썸반! 과 쓰라이 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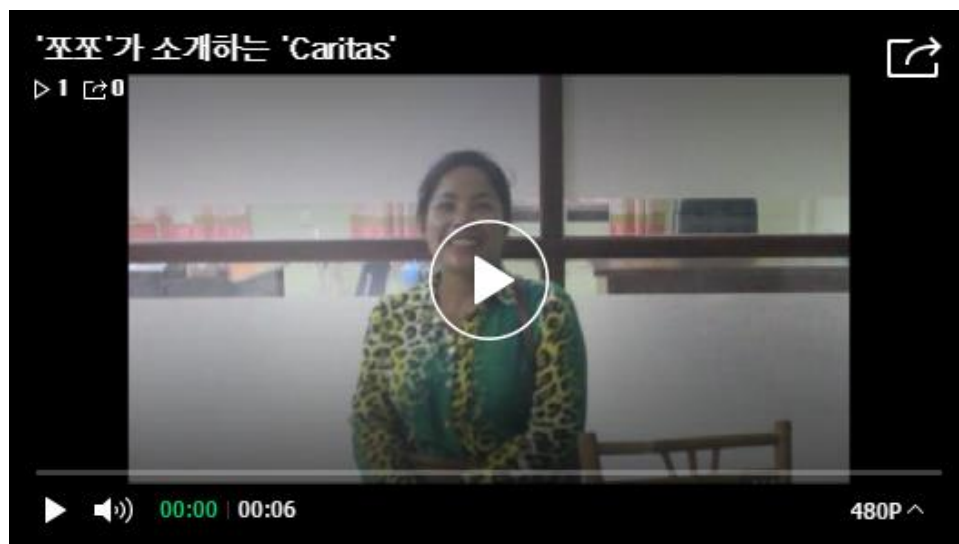


Play boy 막내 썸 반



귀여운 막내 쓰라이 닉
쏟반과 쓰라이 닉은 Caritas 의 youth 들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무실의 막내들입니다!

Youth 들의 어머니, 기숙사 사감 선생님!



Caritas 기숙사를 관리하시면서
밤이나 휴일에 youth 들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곳 Caritas 에는 크게 3 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건물!



사무실 건물에는
Caritas 스태프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과 도서실 및 회의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왼쪽)과 회의실(오른쪽)

우리는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서
우리의 공간인 회의실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다른 하나는 교실 건물!



Youth 들이 수업하는 교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술, 회계, 전산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옆에는 조그마한 야외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Youth 들의 기숙사!



여기는 youth 들의 기숙사로써
남학생 건물, 여학생 건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옆에 있는 식당!



여기서 youth 들의 끼니를 해결하거나 다양한 파티들을 하는 공간입니다.



유스들과의 점심(왼쪽) Dance party(오른쪽)

저번에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음식과 캄보디아 음식을 서로 만들어서 같이 먹었고요.
또 한 번은 이곳에서 youth 들과 함께 Dance party 을 즐겼습니다.

기숙사 맞은편에 있는 운동장!



Youth 들이 배구와 축구를 좋아해서
쭈쭈형과 저랑 같이 youth 들과 함께 배구와 축구를 즐겼던 공간이죠!
(Youth 들 체력이 너무 좋아서 항상 형과 제가 따라가질 못하죠... ㅠ ㅠ)

Caritas 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올려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간달의 Caritas 에 대해 조금은 아시겠나요?

우리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곳 Caritas 에서 앞으로의 활동들을 열심히 해 나갈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 '쫄쫄' -

Takdol 마을

내가 사는 곳은 Takdol 마을이다. 오늘은 주민들에게 전과 부침개를 나눠주며 얼굴도장도 찍고 추석을 맞이하는 한국 문화도 알려주기로 했다.



종수 오빠가 다운로드하여온 <아는 형님>을 틀어 놓고 5 시간 동안 열심히 전을 부쳤다. 계란 묻힌 호박이 기름에 들어가자마자 화르르 익는 소리, 명절 특집 예능 tv 에서 나오는 웃음소리, 어수선하게 섞여 들어간 사람들의 말소리. 한국에서 명절을 보낼 때마다 들었던 익숙한 소리들의 조합이었다.

도희 언니가 “오늘은 한국의 추석이고 그래서 한국음식을 준비했다.”는 내용을 번역해 대본을 만들었다. 문법을 잘 몰라서 막 번역했다는데 마을 사람들이 찰떡같이 참 잘 알아 들었다. 언니는 연신 뿌듯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옆집에서 밥을 먹고,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의자에 앉기도 하며 또 네 집 내 집
경계 없이 집 마당을 오고 가는 이곳 사람들에게, 이웃은 그냥 어찌다 보니 잠만 따로 자게 된 가족
같이 보였다.



양산에서 350 캠페인을 하며 방글라데시 노동자인 알림 씨를 만난 적이 있다. 두 차례 캠페인을 같이
하며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면 마을을 만들어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이 나라에서 알림이 홀로 돈을 벌며
꿈꿨던 고향은 이런 모습이었을까.

written by 망고

따끄돌 아이들

아침부터 우리집이 시끌시끌했다. 벌레에 이은 새로운 적의 출몰인가 했는데 벌레보다는 크지만 훨씬 귀엽게 생긴 동네아이들이 오빠들을 따라 우리집을 방문했다.



아이들의 관심사는 초단위로 바뀐다. 사진을 찍으면 보여달라면서 내 주위로 모여들었다가도, 몇 초 뒤에 아기 고양이들을 조물닥거리며(자신들이 그 작은 생명체에 생각보다 큰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깔깔거리기도 한다. 고양이들이 불쌍해진 오빠들이 다시 "우리 이제 나가자!"하면 신이 나서 오빠들을 따라 뛰어간다.

또 아이들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과전을 왔다가 떠나간 지난 사람들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자원활동가'라는 때깔 좋은 명패로 들이닥친 이 낯선 사람들에게 지칠 법도 한데 말이다. 이들은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툭툭을 타고 집 앞을 지나가면 멀리서도 크게 인사를 외쳐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인 것 같다. 사진이든, 고양이든, 사람이든, 이전에 무얼 보고 겪었던 간에 새로운 것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아이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걱정했는가. "혹시나 피부가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캐리어 가득 화장품을 담아왔고, 출국 직전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카페에서 두병의 더치원액을 샀다. 사는 와중에도 거기에 커피가 없으면 어쩌지 하며 얼마나 염려했는지....

화장품과 커피에 의존하는 이런 내 모습이 부끄럽진 않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어떤 커피를 먹는지가 사람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니까. 단지 깨달은 건, 한국에서는 나만의 색깔로 여겨졌던 부분이 여기에서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거칠어진 피부가 신경 쓰이고, 식사 후에 커피가 당기는 내 모습이 자꾸만 아침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잘 먹고 잘 살기

항상 집밥을 중요시하는,
푸짐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전라도 밥상을 차려주시던 엄마가
내 입맛을 높여줬기에
가서의 음식들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엄마의 김치 양념만이라도 냉동시켜서 싸갈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다.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지금 난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특히 우리 팀 막내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좋아하기에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면 척척 만들어낸다.



물론, 엄마의 맛은 아니지만
여기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맛이다.

그런데 사실 막내는 채식주의자다.
나, 쫄쫄, 쭈쭈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망고가 먹을 수 있는 야채볶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는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항상 준비해준다.
본인은 즐길 수 없지만 나머지 세 사람을 위한, 그런 음식을 준비해준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맛있게.

4 명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맞춰가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청소, 빨래, 설거지, 음식, 잠, 공간, 시간 등 셀 수도 없다.
움직이는 순간 나 이외의 다른 이와의 부딪힘이 존재한다.



우리 집 빨래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라면 용서하고 말 것도 없겠지.
봐주고 말 것도 없고 참고 말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겠지.

생활면에서 가족과 같은 일상을 함께하고 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가족이 아니지 않나.

뭐 이것도 내가 팀원 혹은 친구, 동료 등 우리의 관계를
어떤 단어로 정의 내리느냐의 나름인데
꼭 정의 내릴 필요도, 그래야 할 이유도 없지만
지금 우리는 '동거인'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나의 공간을 나눈다는 것,



우리 집 4 식구 신발

다른 이와 함께 살면서 갖게 되는 부딪힘과 선택의 순간들,

선택이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부딪힘의 연속과 그로 인한 선택의 연속.
모든 사건과 사고, 그리고 선택은 인생에서 나뉠의 의미를 갖기에
매 순간들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다 보니 맞춰진 우리 팀팔찌

정전

진짜 전기 없는 삶. 살아보았다.
이곳에 올 때 한가지 실천하고자 했던 것은 휴대폰 없는 삶.
전자기기에서 조금은 멀어져보는 삶.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 개월 동안 휴대폰으로부터 멀어져보려고 생각해서
인천공항에서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집으로 보내버렸다.

자유시간 동안 노트북으로 부엌에서 간~~~~신히 잡히는 와이파이를 잡아
어떻게든 인터넷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인터넷 사용과 비교하면 정말 멀어지긴 멀어졌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 매일 비가 오긴 한다.
해가 떴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단지, 오늘의 비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강했다.
어제, 그제와는 다르게 퍼부었고,
우리는 그냥 많이 오네?라고만 생각했는데
몇 분 뒤, 선풍기가 꺼졌고. 우리는 그때야 직감했다.

정전이구나.

4 시쯤이라, 그래도 햇빛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한국에서 정전과 비교해가며 금방 불이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정전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불안해졌다.



집안에는 양초만 있었고, 손전등도 없었다.
출국 전 캠프 때 숙소에 도착하면
바로 손전등부터 확인하라고 하셨던 사무국의 가르침.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정말 그랬어야 했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교육이었다....

전기가 나갔는데 2 대의 노트북 배터리가 아웃되었고,

심지어 mp3 도 모두 배터리 아웃.

우리 모두 멘붕.

시간이 갈수록 해가 졌고, 햇빛까지도 없으니까 정말 어두워졌다.

아니 캄캄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부엌에서 밥을 할 수 없었고, 책도 읽을 수 없었고,

씻을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뭐하지?..... "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나와 망고는 고스톱을 하나도 몰랐기에 이참이다 싶어

쭈쭈와 쫘쫘에게 고스톱을 배웠다.

희미한 양초 불빛 아래에서 배우는 고스톱

나는 망고 고스톱 스승 쫘쫘를 다 이겼다.

칭출어람.

고스톱을 아무리 쳐도 시간이 가지 않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의 대화가 다였다.

전기가 나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편해졌지만,

정전이 되지 않았다면 만들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끼리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런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다.

이미 한국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 하루 24 시간을 거의 함께 생활했기에

서로에 대해 충분히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듯,
한 달이라는 시간이 서로를 알아가기에 충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한국에서의 뻘뻘하지만 편리한 생활,
캄보디아에서의 여유롭지만 불편한 생활

어떤 일상이 너는 좋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어떤 것도 확실해지지 않았고, 가닥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모호하기에
명확하게 어떤 것이 더 좋다, 싫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모르겠다' 라는 답이 지금 나에게는,
캄보디아에서의 지금까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답인 것 같다.

메익, 쯔쯔, 망고, 쭈쭈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다.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는 그냥 내가 풀리는 대로 사는 아이였던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선택들을 생각해보면,
남들보다는 덜 고민하고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왔다.
현실의 상황들을 따지기보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

어떤 이들은 많은 고민 없이 시원하게 선택해 보이는 나를 보며

'부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부럽다고 말하는 그들의 고민의 깊이, 신중함, 진지함을 보면
'내가 너무 고민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단순한게 좋지만, 너무 단순한가.'
'다른 사람들은 수백 번 고민하고 선택할 것들을
나는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했어.' 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답은 어쩌면 현실을 도피하려는 핑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정전이 돼서 너무나 불편하고 막막하고 멘붕이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 덕에 한 가지의 또 다른 생각을 만나볼 수 있었다.

메익

축오픈. 메익살롱

이발기. 일명 바리깡을 구하기 위해 우리 마을, 프놈펜을 다 뒤졌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바리깡을 구하기 위해서.
돌고 돌았다.

\$16

다른 곳에서는 기계만 \$30 이상을 불렀는데
내가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고 옆에서 종수는 눈웃음을 살살 쳐서
가격 흥정에 성공하고 말았다.



꼬리치며 가격 흥정 중

종수는 캄보디아에 오기전부터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여기 미용실을 가자니,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종수다 보니,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했던 것 같다.

그가 정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팀원 중 한 명이 옆부분을 바리깡으로 밀어준다면,
가운데 머리는 계속 길러서 나중에는 뒤로 묶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처음에는 묶이지도 않았지만,
점점 사과 쪼개지만큼 묶이더니
이제는 제법 묶인다.

머리가 점점 길었다.
옆머리도 수더분해졌고, 종수가 드디어 나를 찾아왔다.
'누나. 밀어줄 수 있지?'
사실,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다.
그냥 이미 만들어진 선 아래로 바리깡을 밀기만 하면 되는 것.
언제 또 바리깡 들고 남의 머리 밀어보겠어.라는 생각에
흔쾌히, 아주 흔쾌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메익 살롱이 오픈되었다.

종수는 불안한가 보다.
'누나 할 수 있지?'를 1분마다, 아니 10초마다 물어본다.
난 바리깡을 켜고, 화끈하게 머리에 갖다 댔다.

위이이이이잉.



그의 머리는 밀려갔고, 누가 봐도 시원해 보였다.
 더 욕심이 난 나머지 조금 더 짧게 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종수가 처음에 주었던 5mm 보다 더 짧게 설정해 밀었다.

.....

이렇게 1mm 의 차이가 컸나.....
 뒤통수 왼쪽이 쪼오오오오금 더 밀려버렸네.....



그냥 다 저렇게 밀어버릴까 하다가. 그냥 됐다. 어차피 머리는 또 기니까....

종수야 미안해.

누나가 처음이라 그랬어.

그래도 누나 최선을 다했다. 엄청나게 집중했어.



집중하는 자세와 저 눈빛 보이니 종수야?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다음에는 너도 썩하 소리 듣게 해줄게.

쭈쭈(화이팅)

메익

YDP 이전의 우리는 친구



내가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약 1 주일이 지났을 무렵
나는 YDP 유스라고 부르는 그들을 만났다.

내가 수업을 맡고 그 수업을 따라올 학생들이라 생각했기에 나는 그들을
단지 한국에서의 나이 어리고 철이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상상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성인이고, 나와 동갑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나이와는 무색하게도, 그들은 순수했다.
마치 어린 고양이가 어떤 것을 처음 보듯이 그들은 우리를 신기해 했고
관심을 가졌으며 반가워했다.

그들의 관심사항은 내가 한국에서 겪던 그런 관심들이 아니었다.
행복한 삶, 지금 이순간,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과 마냥 뛰놀던 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그 모습을 닮아 있었다.

나 역시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같이 소통을 하고 싶어서 크메르어 공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했으며
유스들이 있는 곳에 항상 먼저 다가갔다.
단 둘이 있는 상황이 생겨 그 어색한 기류속에 대화 하나 없는 고요함 속에서도 나는 그 상황이 좋았다.
그래서 웃었다. 그 친구도 웃었다.

이런 내 마음이 그들에게 잘 전해진 걸까?
유스들도 나를 웃으면서 반겨준다.



"여쭙쭙!! 헬로우!!"





인사 말고는 다른 말도 잘 주고 받지 못하는 우리지만
같이 축구와 배구를 하고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번갈아 들으며
컴퓨터 수업을 같이 듣고 파워포인트를 같이 만들며 춤을 같이 추고 식사를 서로 대접했다.

이러한 작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라온아띠처럼
조금씩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는 정말 좋다.

어떤 사람들이든 자신의 계획이 열매가 맺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오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버렸다.
열매가 맺지 않는 활동일 지라도
그 순간, 그 상황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
그 것이 내가 유스들에게 배운 가장 큰 열매이다.



-By 쭈쭈-

김치전, 간장계란밥/YDP

영어 수업, 한국어 수업은 9월 까리따스의 많은 일정들과,
프썸번데이로 진행하지 못 했다.

그리고 유스들도 영어와 한국어보다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한국 음식에 관한 요리시간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였고, 맛보고 싶어 하였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요청에
어떤 음식이 가장 한국스러우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넘나 한국스러운 비빔밥?

저번 기수가 가장 인기 많았다고 했던 김밥?

유스들이 제일 먼저 말한 짜장면?

한국스럽다고 하니 김치는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우리가 만들어 대접하기보다는 함께 만들기에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점점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많아졌다.

간장 계란밥? 김치전?

그래 바로 그거다.

김치가 들어간 김치전,
한국인이라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없겠지. 바로 간장 계란밥
함께 만들기도 쉽고, 무엇보다 한국스러운 음식에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재료를 준비해 갖고, 요리가 시작되었다.
다들 너무도 원했던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드는 시간이었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해주었고, 모여들었다.

분명히 저번 기수들을 통해서 김치를 보았을 텐데도
김치는 다시 봐도 신기한 친구들.
우리가 김치를 꺼내자마자,
맛보겠다며 직접 김치를 꺼내 쑹덩쑹덩 칼로 썰고,
한입씩 맛보던 친구들.



먹기 좋게 김치를 잘라주는 번라영



김치전은 어떻게 부치는지 딱 한 번 보여주었을 뿐인데,
 원조 전집 손자처럼, 우리보다도 전을 맛있게 부치던 우덤
 코팅되지 않은 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를 만들다
 스크램블을 만들어 버리는 우리를 보더니
 30 여 개의 계란 프라이를 똑딱 만들던 썩히을과 싸이낫
 간장과 참기름만 섞으면 된다고 알려주었더니
 알아서 간 맞추고 쓱쓱 비비던 썩냥



한국의 원조 전집 손자, 우뚝



나와봐, 내가 할게. 계란 프라이의 장인들 썩히을 싸이낫,



버터보다는 참기름이지. 암 그렇고말고



맛나게 비벼주던 썸남



정말 우리는 숟가락만 얹었다.

쿠킹 클래스라기보다, 함께 만들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식사 시작 전부터 인기폭발인 김치전



아무리 만들어도 자꾸 김치전이 줄어든다 했는데.. 범인은 미술쌤 쪽지웃이었다.....



우리가 한국식 피자라고 소개했더니, 정말 피자처럼 잘라버린 빼





김치전과 간장 계란밥의 최후

YDP(Youth Development Program)

앞으로 까리따스에서 우리가 주로 함께 해야 할 프로그램이다.

develop 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데,

쉽게 우리의 역할은 이곳 까리따스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 말이 뭔가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나.

신문방송학은 영문으로 communication 이라고 표기된다.

'communication'

학비 내고 소통에 대해 배우는 나지만,

돈 내고 전문적으로 배워도 사실 소통이 뭔지 잘 모른다.

단지, 우리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전해지는 것,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이런 게 소통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개인주의, 고독, 뭐 이런 단어들 모두 '혼자', '나홀로'같은

나 자신만을 표현하고,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 같지만

어찌 되었든 상대방이 존재하기에 생겨난 단어들이다.

혼자가 아니라 이런 단어들마저도

나 이외의 제 2, 제 3의 인물이 존재하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통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은 혼자만 사는 것은 아니기에.

이곳에서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10 월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볼 생각이다.



메익

위험한 초대

Part 1. 집밥 유선생

유스들이 또 한 번 small party 를 열어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음식점에서도 볼 수 없는 캄보디아 집밥을 두 번이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현지 음식이라는 게 이런 거지!!
가자마자 유스들이 건네준 애피타이저.
우리나라의 약과처럼 생겼고 양갱과 비슷한 쫄쫄한 식감에 맛은 아주 달달하다.
지극히 양수 오빠의 취향이었다.





먼저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유스들!
이들은 항상 이렇게 두루두루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리를 하는 듯 보였다.



'매운 볶음'이라는 뜻의 차끄라이.
간이 세고 약간 매웠지만 밥과 함께 먹으니 아주 맛있었다!



유스들의 파티에는 술이 없다.

첫 번째 small party 에 갔을 때에는 어떻게 술이 빠졌는데 파티일 수 있을까, 과연 흥이 날까 싶었지만 그것은 나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Part 2. 춤판의 조건

식사를 끝내고 '아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건가' 했는데, 한 유스가 우리에게 오더니 "Do you wanna dance?" 라며 물어왔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이전 기수들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의 예사롭지 않은 춤문화를 익히 들어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던 터였다. 알코올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내 몸이 음악에 맞춰 움직여 줄지 걱정되었지만, 캄보디아 젊은이들의 유흥을 접해본다는 생각에 흥미진진하기도 했다.

한 명의 유스가 주위의 꽃을 꺾어 코카콜라 페트병에 담더니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으로 스테이지가 완성되었다. 춤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려한 조명과 올라설 무대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 유스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춤판을 벌일 사람들이었다.



알코올 한 방울 없이 유스들은 2시간 내리 춤을 췄다. 우리가 이제 그만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이들의 타오르는 춤 열정에 제동을 걸고 나서야 이들은 슬슬 각자의 짐을 챙겨 들었다. 클럽에 가면 아무도 자신을 건들지 못한다며 자칭 춤꾼을 자부하던 양수 오빠도, 마지막에는 지쳐 의자에 걸터앉아 그들의 넘치는 흥에 혀를 내둘렀다. 양수 오빠를 바라보는 유스들에게서 마치 K팝스타에 8살 댄스천재가 나와 춤을 추는 것을 바라보는 박진영의 아우라가 풍겼다. 이들에겐 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니, 있었으면 오히려 큰일이 났을 것이다. 아마 탈진으로 쓰러지는 유스들을 실어 나르는 앰블런스가 줄지어 나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영화관 탐방

프놈펜 이온몰에 있는 영화관에 다녀왔다. 여기는 major cineplex 라는 영화관이 들어서 있었다. 아마 캄보디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현대식 영화관일 것이다.



Major Cineplex Group Public Co. Ltd. is the largest operator of [movie theaters](#) in [Thailand](#). Combined with its subsidiary, EGV Entertainment, the company has 490 screens around Thailand. Among its properties is Thailand's largest multiplex, the Paragon Cineplex at [Siam Paragon](#), with 16 screens and 5,000 seats, along with the [IMAX](#) theater. The second-largest chain in Thailand is [SF Cinema City](#).

Major Cineplex 는 태국 브랜드였다. 알고 보니, 내가 major cineplex 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방콕에 여행 갔을 때 IMAX 간판을 보고 반가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major cineplex 안에 있는 IMAX 상영관이었던 모양이다.



티켓부스와 매점

너무나도 익숙한 비주얼의 티켓부스와 매점. 글자가 빨간색이어서 그런지 CGV가 생각났다. 팝콘은 어니언, 캐러멜, 오리지널 세 종류가 있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격은 비싼 편이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팝콘의 양이었다.

우리나라 영화관들은 참 영리하다. 레귤러 사이즈 팝콘과 라지 사이즈 팝콘의 가격 차이는 500 원인데, 그 양은 두배 가량 차이 난다. 레귤러 사이즈는 그저 미끼이다. 그냥 큰 사이즈를 사게 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깟 500 원이 대수냐 싶은 생각에 라지 사이즈를 홀린 듯이 시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넘치는 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화관을 나오며 버리곤 한다. CGV 마케팅 패널을 할 때, 이렇게 버려지는 팝콘이 기업 입장에서도 낭비일 거라고 생각되어 팝콘 무게를 재어서 그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것이 어떻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순수했지 싶다. 그깟 팝콘이 얼마 한다고, 차라리 관객들에게 500 원씩 더 받고 버려지는 팝콘을 처리하는 게 기업에겐 이득이다.



major cineplex 의 팝콘 양은 내 기준에서 매우 적당했다. 무엇보다 팝콘 쓰레기를 걱정할 일은 없어 보였다. 사진 속 팝콘이 레귤러 사이즈인데, CGV 에서 파는 고메 팝콘 정도의 양이다. 음료 안에 얼음이 든 부피를 계산해보았을 때, 음료와 팝콘 양의 비율도 그 균형이 맞았다. 하지만 양수 오빠는 함께 사온 팝콘 양이 부족했는지 라지 사이즈를 혼자 사 먹었다. 그리고 그것도 양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긴, 양수 오빠는 한국판 라지 사이즈도 혼자 다 먹는 사람이었지.

major cineplex 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은 예매 방식이었다. 모바일 예매가 불가능해 무조건 현장에서만 티켓을 살 수 있다. 미리 전화로 시간을 알아오지 않는다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오랜만에 종이티켓을 만져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티켓이 뽀뽀한 재질의 종이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영수증 티켓보다 모으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래도 영화관 주변에는 오락실,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들이 있어 기다리는 데에 시간을 보낼만한 거리들은 많아 보였다.



major cineplex 의 독특한 점은 각 상영관 앞에 저렇게 시작시간과 영화 제목이 쓰여있는 것이었다. 또 상영관 수가 적어서 그런지 영화가 시작하기 10분 전에도 아직 준비 중이라며 입장이 되지 않았다. 나는 오랜 시간 광고를 보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의자도 배치한 시네플렉스의 섬세함에 꽤 흡족했다.

written by 망고

<https://brunch.co.kr/@ann069/18>

캄보디아로 한발짝 더



프놈펜에서 씨엠립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프놈펜과 씨엠립을 왕복해주었던 밴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될 줄 몰랐다.
이 집이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 때쯤,
씨엠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프쭈먼데이.

이곳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다.
다만 우리의 추석보다 더 길기에, 우리도 그 기간 동안,
4박 5일 여행 일정을 잡았다.

앙코르와트가 있는 씨엠립

그냥 이야기 들었을 때는 문화유적지가 많은 도시.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할 거라고 우리끼리 추측했다.



앙코르와트 입장권



앙코르와트



바이온 사원



타 프롬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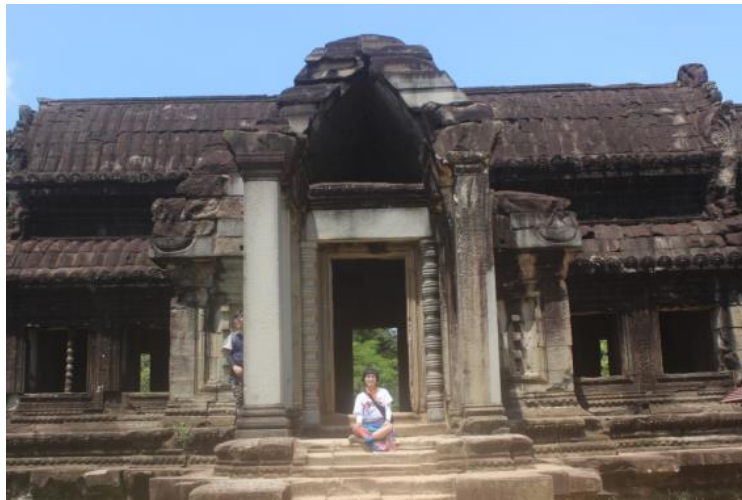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던 여행이었기 보다,
그저 시간이 비었고 사무실에서도 허락을 했기에 떠났다.

아마 한국에서 어떤 곳에 여행 간다고 했다면,
그 전날 설렘으로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씨엠립 가기 전날, 두근대지 않았다.
이미 나에게 캄보디아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씨엠립도 그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설렘이 부족했던 것 같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9월 8일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신선함’ 보다는 ‘편안함’을 쫓고 있다.
씨엠립 가기 전, 우리는 대략적인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것도 아마 편안함을 쫓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숨은 양수 찾기



숨은 종수 찾기

씨엠립에서 느낀 두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다른 이름, ‘자원봉사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로 올 수 있게 기회를 준 이름이다.
자원봉사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선 나의 목적 자체는 말 그대로 ‘봉사’만은 아니었다.
이기적인 나의 개인적인 목적도 자원봉사라는 이름에 가려졌다.
이런 내가 씨엠립을 돌아다니며 만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은 묻는다.

‘캄보디아에 얼마나 있어?’

‘5 개월~’

‘자원봉사구나~ (내 두 손을 잡으며) 정~말 고마워...’

그들은 한국인들이 몇 달씩 캄보디아에 머문다고 하면,
당연하게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꼭,
‘정말 고맙다’는 말도 함께한다.

도대체 왜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고맙게 만든 걸까.
자원봉사라는 그 이름이 갖는 힘인 것인가.

사실 나는 ‘고맙다’라는 말이 불편했다.

아직 여기 온 지 한 달.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이곳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진심 어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언가 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여기서 머물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들에게 말해도 모자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왜 캄보디아에 오래 머무냐고 묻는다면,
그냥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라고 다른 이유를 답해볼까라고



아름다운 캄보디아로 오세요~

또 이번 여행을 통해 든 다른 한 가지의 생각은,
왜 카리타스 유스들이 영어를 배우길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지난 기사들이 영어를 가르쳤다는 보고서를 보고
왜 굳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에게 영어를 배우려고 할까.
궁금했다. 이유를 그들에게 듣긴 했지만,
씨엠립에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캄보디아 특성상 관광객이 많다.
그들을 통해 돈을 버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에 영어는 그들에게 돈과 직결되어 있다.
조금만 영어를 할 수 있어도 아마 수입이 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를 하시기에 더 많은 손님이 있었던 가게들

우리만 해도 툭툭을 탈 때 영어를 완전히 못하시는 분을 만난다면
너무나 당황스럽다.

상점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실제로 씨엠립에서 우리는 우리의 카메라가 있었지만,
그곳 사진기사분께 우리 4 명의 사진을 어렵게 어렵게 부탁드렸다.

하지만 그분은 영어를 완전히 못하시는 분이었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우리는 그 사진을 사지 못 했다.

우리가 겪은 이런 일들을 통해

그분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분명 그 사진기사분도 사진을 팔 수 있었을 것이고,

상점에서 상인들은 나와가격 흥정을 더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덤덤한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여행이 끝나가고 나는 확신했다.

초반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씨엠립으로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늦게 왔으면 그냥 모른 척하며 지나갈 법한 물음들을

씨엠립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기에.

씨엠립을 떠올리면,

그곳은 내가 캄보디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이다.



씨엠립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온 오늘의 일상.

메익

개인 에세이

-쑤쑤-

캄보디아에 온지 한달이 지났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루하루는 아기 거북이의 걸음마 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 길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니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결과적으로만 이야기 하자면 한 달동안 한 것이 별로 없다. 어떤 공식적인 활동도 한 것이 없다.

우리는 캄보디아, 깐달 그리고 그 안의 따끄돌 마을에 이웃이 되었지만 어리고 어린 마치 걸음마를 막 땀 아이였다.

언어가 되지 않았고, 까리타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활동이 없었으며, 이곳의 지리를 알지 못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하나하나를 계획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며 인사를 했고 한국에 추석이 되던 날 우리는 마을 사람에게 한국음식인 전을 돌렸다.

또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먹어본 간장 계란밥을 유스들에게 대접했다.

또 보고서 만으론느 알수 없는 상황과 느낌, 솔직한 말 등을 올린 블로그를 만들었다.

우린 이렇게 하나 둘씩 개미가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듯 할일을 찾기 시작했다.

나 또한 캄보디아에 왔을 때 적응 되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

자꾸만 변하는 날씨, 도마뱀과 고양이의 똥, 소통이 안되는 현실, 그리고 나만의 자괴감까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았다. 뭔가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여기 이곳에 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하고 말을 걸고 둘만 있을 때 그 고요한 침묵과 어색함을 즐기며 웃었다.

그 결과 학생들도 언제나 “쑤쑤!” 하며 웃어줬다.

이런 작지만 친구가 되어 가는 과정이 내가 가장 뿌듯해 지는 순간이라 생각이 된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걸 찾고 우리가 이 마을 이 까리타스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메익-

캄보디아.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다.

그런 나라에 오기까지 설레임, 신기함, 망설임 같은 것 없이 누구보다 무덤덤했고, 별 생각이 없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했다.

이곳에 와서 겪는 다름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당황스러움.

순간순간 겪는 부딪힘과 선택에 대한 두려움

그 다름은 날씨의 다름, 언어의 다름, 의.식.주의 다름, 생활의 다름, 문화의 다름

따지고 들자면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다.

지금 나는 그 다름들을 내 안에 넣어서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잘' 하지 못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두려워서,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틀린 선택 일까봐,

그 순간을 준비하며 핑계 마련해두는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토달지 않고 뭐든지 할란다.

'하면 된다, 아님 말고.' - 김어준의 '건투를 빈다'

-쫘쫘-

우리가 이곳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과연 우리는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살펴보면 뭐... 라온아띠의 본격적인 활동은 없던 것 같다.

이곳에서 한 달간 우리는 라온아띠의 활동을 했다고보다는 우리들의 생활에만 치중되게 활동했던 것 같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생활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끼리 더욱더 팀웍이 좋아지는 거 같아 좋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더 좋다고 본다.

이곳에서 있다 보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된 것 같다.

그냥 매일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사무실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밥때가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나있다.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나는 그저 생각 없이 멍해지는 것 같다.

우리 팀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학업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공부하면서 살아온 내가 이곳에서는 모든것을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니 모든일에 망설여진다.

어떻게 시작 할지 몰라 망막해 하고있다.

단지 뚜렷한 목표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냥 팀원들만 믿으며 따라가기에는 내가 짐만 같아서 싫고, 그렇다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망막하고...

그냥 어찌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내가 멍청해 보이거나 답답하게 보인다...

그냥 이곳에 와서 바보가 된 느낌이다.

-망고-

캄보디아에서의 한 달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내가 충실했던 것은 캄보디아, 따끄돌 마을, 까리타스에서 우리 팀원들과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익숙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을 구축해내는 일.

여전히 나는 벌레가 싫고 예측 불가능한 캄보디아의 날씨가 짜증도 난다.

하지만 이제는 내 팔에 기어오르는 개미를 발견하고도 입으로 혹 붙여 떨어낼 수 있게 되었고, 거뭇거뭇한 구름들이 다가와도 우산을 사기 보다 기꺼이 비를 맞을 각오를 한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캄보디아의 일상 속에 흠뻑은 아니어도 축축하게나마 젖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중요한 건 지나간 한 달보다 앞으로의 4 개월이 더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젠 일상을 구축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때인 것 같다.

때로는 막연하고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겠지만,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